

나는 누구일까요?(나무도감)

개발자	왕효숙, 박경숙, 양경희(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미션을 수행하며 탐방로별 대표 수목에 대해 알아보는 비대면 셀프 체험꾸러미로 나무의 생태에 대한 이해를 돕니다.	
활용대상	소그룹(나홀로, 친구, 가족, 일반인 등)
활용시기	사계절
준비물	나무도감 교보재, 액자, 포토프린터
소요시간	60분
제작비용	10,000원

나는 누구일까요

상생의 길 셀프 탐방 체험 꾸러미

상생의 길을 탐방하면서 '체험꾸러미'에 나와있는 장소들 찾아보세요

숲을 두르고 아름답게 해주는 나무에 대해 알아보고 나무와 기벌사진을 찍으면서 즐거운 탐방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미션장소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사진을 출력하여 액자에 담아드립니다

* 상생정보통 '미스리Lee' 사진 한 컷 응용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나눔길의 시작을 알리는 서어나무

흙지에 자라는 나무라고 하여 서목(西木)이라고 불리다가 서어나무가 되었다. 오래된 서어나무는 세월을 표현하듯 줄기가 울퉁불퉁 굴곡이 지며 근육질의 줄기로 모습을 나타낸다. 줄기 가운데 구멍은 둘러있지만 나눔길의 환경을 지키며 오랫동안 위풍당당하게 서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고단한 삶을 지고가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어 마음이 뭉클해진다.

불교에서 신성시 되는 보리수나무

절에서 흔히 부르는 보리수나무는 원래 보리자나무이다. 중국 원산으로 한국에는 불교와 함께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언제부터 심기 시작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보리, 즉 깨달음을 얻었다하여 절에서 주로 많이 심고 있으나 석가모니와 관련된 보리수는 보오나무이다.

지친 일상으로부터 위로해주는 소나무

숲에 들어오면 나무들이 내뿜는 피톤치드 덕분에 상쾌한 기운을 느낀다. 그 중 소나무는 기후변화의 주범 탄소배출을 흡수하여 정화시키고 피톤치드를 발산하여 쾌적하고 맑은 공기를 생산한다. 소나무에 둘러싸인 명상실에서 잠시 눈을 감고 따스한 햇살과 바람 그리고 숲 속 생경들이 수반거리는 소리와 향기를 맡아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라앉고 지면이 다독이는 소리와 에너지가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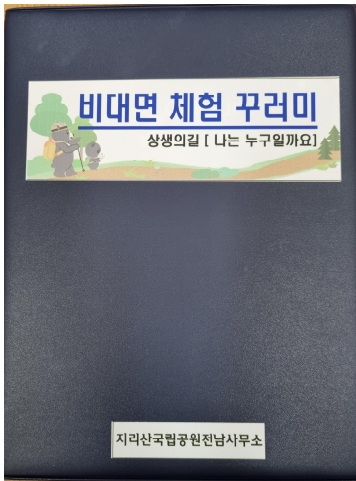
참나무 6형제의 대표주자 곱참나무

하늘에 닿을듯 높이 뿜은 곱참나무는 나눔길과 보통길은 연결하고 있으며 참나무 6형제 중 도토리 크고 줄기의 코르크질이 잘 발달되어 있다. 줄기에는 갈수종갱이, 사슴뿔, 말뚝 등 여러 곤충이 상생하여 살아가고 있다. 또한 나뭇잎은 표면에 미세먼지가 붙어 공기중의 미세먼지를 흡입 수 있으며 참나무숲의 탄소흡수능력은 소나무 숲의 두배정도 더 높아서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같은 나무이다.

* 나무 한그루당 약 35g의 미세먼지, 1ha의 숲은 153kg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

천문정을 배경으로한 팽나무

열매를 대나무줄에 걸어 쏘면 팽-소리를 내며 나간다고 하여 팽나무라고 불린다는 말도 있으나 한자어인 팽목(彭木)에서 유래되었다. 마을 주변에 많이 심는 나무로 우리나라의 정자목 중 느티나무 다음으로 많이 심어져 있는 수종이다. 습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로 상생의 길을 찾는 탐방객에게 그늘을 내어주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구재 사진 1_비대면 체험꾸러미)



(교구재 사진 2_비대면 체험꾸러미)

운영방법

1. 나무의 탄소중립 역할과 셀프체험꾸러미 활용법을 알아본다.
2. 나무도감과 해설사 명함을 제공한다.(미션 사진 촬영 후 전송)
3. 미션 - 탐방로 일부구간에서 직원이 나무와 함께 찍은 사진 제시

- 20명 기준, 2개조로 나눈다.
- 놀이 전 주머니에서 하나씩 비석을 꺼내어 탄소관련 그림과 미션을 확인한다.
- 미션을 수행하며 탄소관련 짝비석을 맞춘다.
- 중간에 떨어트리거나 맞추지 못할 경우 시작점에서 재출발한다.
- 10개의 비석을 빨리 넘어트린 조가 승리한다.

향후방향

소그룹 단위의 탐방객에게 비대면 체험도구로 제공한다.

참고내용

2050탄소중립정책 및 국립공원 탄소중립 정책 교육 및 전시패널 등을 참고한다.

주의사항

- 프로그램 진행 전 운영 장소의 안전성을 확인한다.